

## WISE Open 적용 사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고객사: 서울특별시청

사업명: 행정데이터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사업기간: 1 차 2011.10. ~ 2012.3., 2 차 2012.8. ~ 2013.2., 3 차 2013.8. ~ 2014.2.

### 서울시 열린 시정 2.0 핵심 업무로 공공데이터 초점

서울시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공 DB 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IT 콘텐츠 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 시장의 시정 정보의 개방·공유·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열린 시정 2.0'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홈페이지 및 다양한 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해왔지만 정보성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오픈하여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시트,

차트, MAP 오픈 API 등 다양한 서비스로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400 여개의 내외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서울시 시스템들 중에서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 DB 를 개방하기 위해 업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DB 의 내용, 소재 및 공개 가능성을 2011년도 전수 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150 여개의 개방 가능한 시스템 목록을 확보했다.

또한 서울시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보건, 환경 등 10개 분야 주요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현재 70여개의 시스템, 1,049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동인구,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등 민간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2014년까지 150종의 시스템 공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공개데이터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2012년 5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오픈한 이후 한 달 간 2만여 건 정보 이용됐으나, 2013년 3월 현재 서비스 및 데이터 이용건수가

267 배 급증했고 최근에는 시민이나 기관에서 일 24 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행정데이터 통합으로 개방 시스템 기반 구축

오픈 거버먼트 2.0 의 주요 쟁점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소통, 참여, 투명한 정부를 내세우는 열린데이터 광장 포털 사이트(<http://data.seoul.go.kr>)를 오픈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내부업무관리에서는 서울시에 산재한 모든 원천 DB 들을 오픈아키텍처 DB(향후 EDW 로 확장)로 확정하고 분류체계, 기준정보 관리, 정보공개관리 등을 적용하고 공공데이터의 Raw DATA 를 sheet, chart, map, 파일, openapi, 링크로 구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서울시 공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서울시 보유 공공정보 DB 의 소재파악 및 현황조사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유용한 정보목록을 발굴하였다. 이와 함께 데이터 품질진단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데이터 품질개선을 지원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시스템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고 서울 데이터마트 아키텍처와 서울 데이터마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공공 DB 제공 중장기 서비스 모델과 향후 공공 DB 활용지원센터 운영방안까지 마련하였다.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서울시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공공정보 제공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 다양한 부가기능과 투자출연기관, 구청으로 공공정보 영역을 확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은 다양한 부가기능과 본청과 사업소에 이어 투자출연기관으로 공공정보 영역을 확대하여 재 오픈 하였고 현재는 구청 단위로 까지 확산하고 있다.

2013 년 초의 재오픈을 통한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Sheet, Chart, MAP, OpenAPI 서비스 중 한가지만을 제공하였지만,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특성에 따라 Sheet, Chart, MAP, OpenAP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활용성을 극대화 한 것이다. 학교나 연구소 종사자는 Sheet, Chart, Map 을 통해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개발자는 OpenAPI 를 통해 앱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데이터 중 활용성이 가장 높은 것이 공간정보이다. 기존에도 MAP 서비스를 하였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를 저장하는 File 타입을 Shape 파일만 제공하였으나, DFX 및 GML 파일형태를 추가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측지계좌표 및 위경도 좌표를 추가 제공하여 다양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 API 를 통해 매쉬업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공데이터의 탐색에 있었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공공데이터간의 융합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

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카달로그)을 서비스함으로써, 시민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보다 용이하게 탐색하고,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 WISE Open 과 WISE 3.0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공공데이터 개방관리는 WISE Open 을 기반으로 하여 확대, 발전하여 왔다. 서울시는 WISE Open 외에 1 차 사업 당시 WISE DQ 를 적용한 데이터품질관리로 개방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최근 3 차 사업에서는 시각화(WISE Visual)와

통계분석(WISE OLAP) 기능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WISE 3.0 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WISE Open 을 기반으로 시각화와 데이터품질관리 도구가 결합되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은 데이터 개방 발전단계에 따라 WISE Open 을 기반으로 WISE 3.0 이 체계적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 (주)위세아이텍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 번지

판교 이노밸리 C 동 5 층

☎ 02-6246-1400 ✉ [contact@wise.co.kr](mailto:contact@wise.co.kr)

[www.wise.co.kr](http://www.wise.co.kr)